신항락 칼럼

이제 공은 문재인 대표에게

이사·주필

'봄날은 간다'는 시인들도 좋아하는 노래라고 한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가사 3절 가운데 많이 알려진 1절의 주요 부분이다.

'봄날은 간다'는 1953년 가수 백설희가 처음 부른 이후 이미자, 배호, 나훈아, 조용필, 장사익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가요로서 널리 애송되고 있다. 몇 년 전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 가요 중 최고의 애창곡으로 꼽히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봄날은 간다'를 불러 입살에 올랐다. 당시 회의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독설을 퍼붓자 주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다. 이 와중에 유 최고위원이 한 곡조 뽑았으니 "최고위가 '봉숭아 학당'이냐"는 자조섞인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봄날이 지난 몰골이다. 당 지도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궤도 이탈'은 과연 제 정신들인지 의문이 든다. 유 최고위원의 경박한 처신도 문제지만, 막말을 한 정 최고위원의 '뒤태'는 한 편의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3일간 버티다 11일 여수에 내려가 칩거 중인 주 최고위원을 만나지도 못한 채 전화상 사과를 했다니 웃음거리만 샀을 뿐이다. 그는 여러 차례 막말 파문으로 당을 '들었다 놨다' 했던 인물이다.

리더십 부족이 화 키워

자질론을 든다면 문재인 대표도 예외일 순 없다. 정 최고위원의 독설 공격에도 준엄하게 호통치지 않고 주 최고위원의 손을 잡으며 참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니 대표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상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만 키운 셈이다.

새정치연합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 크다. 재보선 패배로 당의 고질적 문제와 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확인됐음에도 그는 치열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문 대표는 대안 없는, 진정성 없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 당 내부는 안이하고 방자했다. 이번 '최고위 사태' 역시 재보선 참패 열흘 만의 일이다.

그래서 나온 게 새정치연합은 '2주짜리 기억력'이라는 조롱이다. 성찰을 다짐하고 환골탈태를 외치다가 2주가 지나면 기억을 지워버리고 구각의 모습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다. 오히려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관성이 더 강했다. 그 중심에는 친노 패권주의가 자리했고,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위력을 발휘했다.

이순신 장군은 보이는 실체보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무섭다고 했다. 그리고 적은 항시 내부에 있으며 안이함과 무능이 곧 나의 적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의 '엄지손가락' 격이지만 분명 '정치 9단'은 아니다. 가까운 사익(私益)에 집착하고 조급증을 내는 것을 보면 그렇다. 친노의 좌장인 그가 지난 2월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것부터 실타래는 꼬이게끔 돼 있었다.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휘하에 두면서 대권을 넘보겠다니 사적인 과욕이 묻어난다.

'백의종군'이 답일 수도

4·29 재보선 참패 직후 곧장 광주를 찾은 것도 당의 대주주인 광주의 민심을 돌려놓지 못하면 향후 대선 가도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조급증에 있다. 광주에서의 민심 이반은 문 대표나 새정치연합에겐 자업자득이다. 당이 친노 중심으로 이끌리면서 소위 '텃밭'이라는 호남을 외면한 데 대한 '레드카드'인 것이다. 그럼에도 병 주고 약 주겠다니 불붙은 호남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당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로에 빠진 것은 적어도 문 대표가 두 가지를 생략한 데 있다. 먼저 당 대표로서 재보선 참패에 대한 재신임 정도는 물었어야 했다. 방식이야 어떻든, 또 그렇게 했다면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문 대표 체제에 돌을 던질 리는 만무했을 것이다. 재보선 완패의 화근인 친노에 대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로 일관한 것 역시 실체가 없다. 11일 사과 발언에서도 진일보한 알맹이는 찾기 어려웠다.

이제 문 대표는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오로지 친노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백의종군할지, 당이 깨져도 끌고 갈지는 그의 몫이다.

물론 경쟁력 있는 주자가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고, 새로운 주자가 탄생하게 마련이다. 고인 물은 흘려보내야 한다. 친노 패권주의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호남의 민심이다.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 주자는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승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社 說

신세계 특급호텔 건립 부작용 최소화해야

(주)신세계가 광주 도심 한복판인 화정동 이마트 부지에 특급호텔을 포함한 '지역 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교통난 해소와 소공상인 상생 대책 등이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도 이 일대는 교통 혼잡이 극심하고,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립을 반대해 걸림돌이 될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주)신세계가 11일 내놓은 특급호텔 건립 구상안에 따르면 복합시설 규모는 전체 연면적이 약 30만㎡로, 세계 최대 백화점인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29만㎡)보다 넓다고 한다. 문제는 특급호텔 건립 예정지가 최악의 교통 혼잡지역이라는 점이다.

광천터미널 사거리를 중심으로 특급호텔 건립지 인근은 지금도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가 심각하다. 게다가 공사기간만 4년 여에 달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일대 소상상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특급호텔 건립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금호월드 상가 입주자들과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날 "신세계 측이 특급호텔을 빙자로 면세점과 대형쇼핑몰을 세우면 상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특급호텔 건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이다. VIP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형 국제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급증하는 '유커'(중국인 관광객)에 대비하고 KTX 개통에 맞춰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빨대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특급호텔과 면세점 설립은 절실하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특급호텔 건립도 시급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차도와 추가 도로 건설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세계 측도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5·18이 코앞인데 기념재단 내홍이라니

광주 5·18 민주항쟁 35주년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정부가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창을 거부하면서 35주년 행사위원회가 국가 보훈처 주관의 5·18 기념식 불참을 통보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 때아닌 내홍에 휩싸여 빈축을 사고 있다.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내부 갈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내년 기념사업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하지 않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11일 기념재단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 분야 예산안에서 기념재단 예산을 12억 원으로 책정했다. 기념재단이 당초 24억 원을 요청했지만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16억3000만 원)와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20억)의 예산이 동결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상당하다. 만약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기념재단이 5월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주·인권·평화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념재단의 역량 저하다. 기념재단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태도가 조직 전반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탓이다. 이렇다 보니 5·18의 전국화·세계화는 고사하고 5월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보수세력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념재단은 하루빨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사회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내부 갈등에 빠져 있기엔 기념재단의 임무가 너무 막중하다.

은펜칼럼

광주·전남의 상생프로젝트를 보면서

강 대 석
남도향토문학연구원장·행정학박사

민선6기 들어 광주와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시·도 상생 프로젝트가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양 시·도지사가 전격 합의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의 경우만 봐도 과거와 같은 경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은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문화적·지리적으로 한 뿌리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고, 2005년 전남도청이 금남로에서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행정구조상 완전 분리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광주와 전남이 둘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남은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흔히 고려시대에는 왕건의 훈요십조에 의해 전라도가 차별받은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고려 오백년 역사를 두고 전라도 출신들이 홀대받거나 차별받은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고려 태조 왕건은 전라도 출신을 중용했다. 고려개국을 도운 최지몽, 도선, 신숭겸 등이 모두 전라도 출신이었고, 나주출신 오씨 부인을 장화왕후로 봉했으며 그녀의 아들은 여러 왕자들을 제치고 2대 혜종이 되었다. 또한 17대 인종은 장흥출신 임씨 부인을 공예왕후로 맞아 공예왕후의 아들이 셋이나 왕위에 올랐다. 장남은 18대 의종, 차남은 19대 명종, 삼남은 20대 신종이었고, 21대 희종과 22대 강종은 그녀의 손자들이었다. 그 후에도 공예왕후의 계열에서 고려 말까지 대대로 왕위를 계승했음을 보면 전라도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전라도는 전주지역이 왕조를 탄생시킨 지역이라 하여 풍패지향(豊沛之鄕)으로 불렸고 도민들도 그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지역에 기반을 둔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 스스로 국난극복에 앞장섰다. 일례로 임란시 김시민, 최경회, 강희열, 강희보 등은 경상도로 달려가 진주성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했고, 고경명, 고인후 부자 등은 선조의 행궁을 지키기 위해 평안도로 달려가던 중 금산전투에서 전사하는 등 전라도 의병들은 전국을 무대로 싸웠다. 또한 전라도 수군들은 이순신장군을 도와 나라를 지켜 냄으로서 이순신장군도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고 했으며, 이를 증명하듯 임진공신록에 이름을 제일 많이 올렸다. 말하자면 호남은 고려 이후 조선후기까지 1천년 동안 집권여당의 뿌리였으며 지금처럼 소외도 차별도 받지 않았다.

이렇듯 탄탄했던 전라도가 오늘날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가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호남은 지역여건이 비슷한 영남과 함께 여촌야도(與村野都)의 성향 속에서 차별과 소외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수도권과 영남권의 집중개발정책으로 호남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그 뒤 30여 년간 이어진 영남 정권의 노골적 차별정책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호남권 지자체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경제논리를 내세워 자치단체 간에 경쟁을 부추긴 정부의 정책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광역경제권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여건이 비슷한 호남권 지자체들은 사업마다 겹치거나 부딪쳤고 그 결과는 소원해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라도 광주와 전남이 호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함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호남의 미래는 호남인들이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고 볼 때,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이 함께 하는 호남권 상생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토대위에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와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 나가는 것이 호남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예향 광주여, 부활하라

양홍
수필가

모스크바는 러시아 정치사회의 중심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도시는 단연코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이곳에 잠시 들렀던 기억이 있다. 당시 여정을 풀었던 호텔이 다행스럽게도 한 수도원의 묘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다. 다행스럽다고 표현한 것은 그 묘지가 이름도 생소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했다. 한 번 왔다 떠난 이 세상에 귀한 흔적을 남긴 예술인들을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많은 묘소들 중에 두 사람의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차이코프스키. 여행 중에 폴란드에서는 쇼팽, 핀란드에선 시벨리우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차이코프스키의 동상 앞에서 함께 동행 했던 한 후배 목사는 가지고 간 카메라의 셔터를 연신 눌러댔다. 평소 마음에 그리던 인물들의 발자취 앞에 선 감격 때문이었으리라.

차이코프스키는 사상적으로 불안했던 혁명 전야인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자랐다. 그래서인지 그는 현실을 혐오했고 성격도 우울했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삶과 상황은 오히려 차이코프스키의 생애와 해석을 거치면서 최대의 명곡 '비창'으로 재탄생(復活)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이며 지휘자의 한 사람인 소련 출신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Mstislav, Rostropovich)가 미국 망명 16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여 연주회를 가질 때도 바로 이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연주했다고 하니, 러시아인들은 모국의 과거와 현실을 이 곡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으리라!

도스토예프스키의 묘소 앞에서도 한참을 침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쩌면 그 작품들의 이름이 '가난한 사람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등이었을까?

비범인(非凡人)이라고 자부하면서 범인(凡人)을 사살하는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와 갱생('죄와 벌'), 인생철학을 달리 하는 아버지와 삼형제의 성격을 다룬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치 예언자적 영감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훤히 꿰뚫어보며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해 준다.

내가 여행했던 러시아에는 곳곳에 동상이 많았다. 그만큼 인물들도 많았다는 말도 될 것이다. 많은 작품들을 통해 가장 익숙했던 톨스토이의 생가도 가보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신 그의 동상 앞에 서서 젊은 시절 한참을 들여다보았던 그의 작품 '부활'을 되새기며, 내 마음의 고향이었던 예향 빛고을 광주의 '부활'을 기도하기도 했다.

톨스토이가 보는 '부활'은 "다시 사는 양심"이다, 청순한 하녀 카츄샤를 유혹하여 정조를 유린한 뒤에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던 네플류도프가 시베리아까지 그녀를 찾아가 용서를 빌도록 했던 바로 그 '양심'말이다.

러시아에는 톨스토이라는 대문호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러시아 땅에 수많은 크고 작은 '톨스토이'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들의 이런 '부활'의 소망이 종국에는 이 동토(凍土)의 땅 러시아에 햇볕이 들게 했다고 생각한다. 톨스토이의 나라 러시아에서 냉혹했던 철의 장막이 걷히고, 시베리아의 혹독한 옥문(獄門)이 열려 훈풍이 불어 온 것은 바로 이 '톨스토이들'이 품었던 소망의 결과라 생각한다.

왜 톨스토이는 '부활'을, 차이코프스키는 '비창'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썼던가! 예술인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글로, 선율로, 그림으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이다. 현실을 다시 살고, 보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에는 예언자적이며 시대의 사도(使徒)로서 미래를 소망하는 사명도 함께 담겨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룩하고자 하는 신(神)의 대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리라.

부활! 가슴에 시대정신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톨스토이'들이 살고 있는, 예향의 도시 광주의 부활(復活)을 간곡(懇曲)히 기원한다.

無 等 鼓

연금정치

공적연금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다. 비스마르크는 1889년 연간 소득 2000마르크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일종인 '노령폐질연금'을 도입했다. 이 연금은 도입과 동시에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를 노령세대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사회주의자를 공공의 적으로 여긴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은 정치적 목적에서 였다. 비스마르크가 총리로 임명될 당시 독일은 격랑의 시대였다. 산업화와 함께 급부상한 시민세력은 정치 참여를 요구하며 의회를 장악했고 외부에서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열강들이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비스마르크는 국민이나 의회로부터 선출된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황제에 의해 해임될 수 있었다. 통일 독일의 초대 황제였던 빌헬름 1세는 비현실적인 야망을 품고 있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비스마르크와 첨예한 갈등을 빚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스마르크가 꺼내 든 공적연금 카드는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묘수였다.

공적연금이 정치적 목적에서 도입된 이래 서방에선 연금이 정치 도구로 곧잘 이용되고 있다. 연금 개혁을 두고 유럽인들이 흔히 "건드리면 죽는다(Touch it and you die)"라고 말하는 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하기 때문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5년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액을 줄이는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사민당 지지층인 노동자와 중산층 이하 계층의 대거 이탈로 정권을 내줬다.

연금정치가 국내에서도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직종간·계층간·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이 향후 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해지자 '표(票)퓰리즘'에 사로잡혀 인기영합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하나를 놓고 세대간 갈등이 심한 마당에 섣부른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부자간 간극을 벌이는 형국이다. 봉기(蜂起)는 벌집을 잘못 건드릴 때 일어난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